8/12 14:~ 배포

보 도 참 고 자 료

題 目 : 비과세 고수익·고위험채권 펀드 판매

主要內容

1. 비과세 고수익·고위험 채권펀드의 판매

□ 고수익채권시장 활성화방안의 일환으로 마련된 비과세 고수익·고위험 채권펀드가 8.14부터 판매될 예정임

□ 비과세 고수익·고위험 채권펀드는 **BB등급 및 B등급 채권 및 CP를 30%이상 편입하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면제(총 16.5%)와, 공모주 배정**을 통하여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는 상품임

2. 금융기관별 판매준비상황

□ **투신사는 총 18개사가 판매를 예정**하고 있으며, **약 8천억원 정도를 예약판매**하였음

※ 판매예정사: 교보, 대신, 대한, 동양, 동원BNP, 삼성, 서울, 신영, 신한, 제일, 조흥, 주은, 한국, 한빛, 한화, 현대, LG, SK

※ 주요투신사의 예약판매현황: 한투(2,127억), 대투(2,300억), 현대(1,983억) (투신협회 8.7 기준)

□ 당초 상품판매에 다소 소극적이었던 은행권도 **14개 시중은행이 비과세 고수익·고위험 채권신탁의 판매를 위해 준비중임**

※ 판매예정은행: 조흥, 한빛, 국민, 외환, 신한, 한미, 하나, 평화, 산업, 농협, 기업, 수협, 대구, 부산(은행연합회 8.11기준)

□ 8.14부터 상품이 판매될 경우 우선 18개 투신사에서 비과세 고수익·고위험 채권펀드에 가입할 수 있으며

○ 은행신탁의 경우에는 은행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해당은행에 판매개시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임

3. 가입방법

□ 2002년말까지 1인 1통장으로 최고 3,000만원까지 가입가능

○ 투신, 은행신탁, 뮤추얼펀드에서 판매하는 상품에 가입하며, 최소 **의무투자기간은 1년임(1년이내 환매시 과세)**

○ 일시납 뿐만 아니라 적립식 상품도 가능하며, 펀드기간은 1~3년임

※ 종전의 비과세 저축가입자도 가입가능

4. 비과세 펀드의 효과

□ **저금리 시대에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**을 얻을 수 있는 상품이며, 또한 **공모주 배정을 별도로 받게되므로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서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음**

※ **8.6 현재 은행의 1년정기예금금리가 5.43%**인데 반해 유사한 고수익·고위험 투자상품(50% 세금감면)인 **High Yield, CBO 펀드의 수익률은 9%수준이었음**

○ 다만, **편입된 BB등급 채권 및 CP의 부도가 발생할 경우 이에 따른 손실**로 인하여 실제수익률이 기대수익률에 미치지 못하는 위험부담이 있음

<참고> 주식시장관련 비과세 상품(근로자주식저축)

□ **저축금액의 30%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되 불입액의 5%에 대해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하며, 이자·배당소득을 비과세**하는 상품임

○ 세액공제를 통해 5%의 수익이(정기예금금리 수준) 보장되며, 주식투자에 따른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음

○ 작년 12월부터 판매되었으며, 금년말까지 가입시 세액공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음(금년 가입시 내년초 소득세 정산시 세액공제를 받게 됨)

○ 모든 근로자가 1인 1통장으로 투신사, 뮤추얼펀드, 은행신탁에서 판매하는 주식형상품에 최고 3,000만원까지 가입가능하며,

○ 저축기간은 1~3년이며, 일시납 및 분할납이 가능

報道資料生産課: 證券制度課 (TEL: 500-5363~5)
증권제도과장 임종룡, 사무관 김명규